

# 차별화된 군민참여형 축제로

## 2023 임실N치즈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 준비 만전

매년 축제기간만 5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가 올해는 더 풍성하고 더 차별화된 군민참여형 축제로 개최될 전망이다.



임실N치즈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 모습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7일 종합상황실에서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될 2023년 제9회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 및 유관기관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임실N치즈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각 실과장, 유관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담당 업무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축제제전위는 축제에 대한 총괄 운

영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안전관리 계획 및 재해대책 계획을 보고하며 안전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축제 음식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 및 지역축제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된 상황에서 임실N치즈축제에서는 축제 시기에 맞춰 나타나는 바가지요금 없이 도록 적정가격을 준수하여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실N치즈축제는 축제장 공간 확장으로 장미공원인 유람형 테마공원 조성, 치즈역사문화관 관람 및 다양한 치즈 관련 체험 등으로 한층 차별화되고 북북 뛰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신선했고 군민들이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치즈축제의 백미인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 경관은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장 일대를 가득 메우며, 구절초 등과 함께 가을꽃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된 축제는 4일간의 축제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5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유일의 치즈를 테마로 한 축제인 치즈와 관련된 놀이와 먹거리, 즐길거리에 더해 야간경관, 12개 읍·면의 향토 음식과 임실한우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이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내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나섰다.

## “관광지 홍보 효과 증대될 것”

### 순창발효관광재단, 지역 유명 업체와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가동’

순창발효관광재단(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이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내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나섰다.

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주·광주 등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베르저르당, 화양연화 카페에서는 관광지 정보제공용 게시대를 비치해 관광객들에게 최신화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관광재단은 28일 지역 유명 업체 3곳과 발효테마파크, 강천산, 체계산 등 순창의 유명 관광명소 공동 홍보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발효관광재단 선운숙 대표, 베르저르당(갤러리카페) 조준 대표, 화양연화(한옥카페) 이광진 대표, 응기체원관 권운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따라 순창발효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은 협약업체 3곳을 방문하는 경우 오는 12월까지 20% 할

관광재단 선운숙 대표는 “지역업체와 관광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홍보 효과도 증대될 것이다”라며 “관광 플랫폼 운영을 통해 관광객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지역과 상생하는 순창군 관광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앞으로도 ‘관광플랫폼’ 협력업체를 추가 발굴해 순창군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축산농가 경영안정 위해 저리 융자지원

순창군은 지속되고 있는 축산물 가격 하락,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84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새농촌 육성기금으로 73농가에 299억원을 축산농가에 저리 융자 지원을 완료했으며, 추가로 6월 말까지 73농가에 55억원의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농촌 육성기금은 농업인은 5천만원, 농업법인인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율은 연 1%로 상환기간은 3년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율 1.8%의 저금리 융자 정책 자금으로 2년간 지원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료비 지원이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소값 하락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위기 극복을 위해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관촌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임실군이 지난 26일 관촌면사무소에서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촌면 행복누리원 신축 후보지에 대한 입지 설명 및 향후 계획, 주민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편리성,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등 입지 선정으로 최적화된 부지를 비교 분석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관촌면 행복누리원이 새롭게 신축되는 만큼 입지 선정 및 향후 일정에 큰 기대감과 많은 관심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개방형 휴게소 도입 협약 체결

남원시는 지난 28일 수지면에 위치한 순천·완주 고속도로 내 순창휴게소(완주방향)를 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화 시설 확충을 위한 개방형 휴게소로 도입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김석규 구레지사가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남원시와 도로공사는 진입로 확장과 외부고객 주차장 확보, 산책로 정비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후면부인 국도에서 진입해 휴게소의 편의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휴게소로, 개방형 휴게소가 도입되면 지역특화시설인 행복장터(한우직매장)를 함께 설치,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남원 한우를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환수 공공재정지급금 실적 최고

### 2022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환수 보조금 12억2000만원

남원시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환수 보조금 12억2,000만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등 이행실태를 주

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 점검 노력 제고를 위해 각 기관의 환수·제재 부가금 처분실적을 2023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 가점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원시의 환수 보조금 실적은 청렴 노력도 가점으로 2023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 남원시가 환수한 보조금은 12억2,000만원이며, 지역투자 촉진 11억9,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00만원, 전세서비스사 소득안정자금 75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순이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반부패 법령 교육, 보조사업 등 직무 연계 청렴교육, 사전 컨설팅 제도, 익명 신고시스템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남원시 이성근 감사실장은 “정부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감사·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의 제도적인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건축과, 특색있는 지붕 도색 추진... 주민 큰 호응

남원시 건축과는 2022년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갈치마을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에서 운영하는 주민 휴식공간을 리

사업은 갈치마을의 미관 조성을 위해 지붕을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색으로 중점적으로 도색을 추진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간단한 다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갈치마을회

모델링해 마을 주민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주민들이 산책하고 쉴 수 있는 풍경동산을 조성, 8월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근식 건축과장은 “풍경동산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아름다운 마을 경관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